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현대미포조선, 컨테이너선 수주

현대미포조선이 그리스 Capital Maritime&Trading으로부터 1,800TEU급 피더 컨테이너선 3척을 수주함. 지난 7월 3척 발주때 확보해 둔 옵션분임. 선가는 총 1.89억달러임. 납기는 2023년 9월임. (선박뉴스)

현대삼호중공업, VLGC 2척 수주

현대삼호중공업이 현대글로벌로부터 86,000CBM급 이종연료 VLGC 2척을 수주함. 선가는 총 1.68억달러이며 납기는 2024년 6월임. (선박뉴스)

현대중공업그룹, 해상 플랫폼 개발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은 한국석유공사와 공동으로 '한국형 해상용 이산화탄소 주입 플랫폼'을 개발하고 노르웨이 DNV로부터 기본 승인을 획득함. 현대중공업 등 3사는 오는 2025년부터 동해가스전에 연간 40만톤규모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데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MSC to splash out \$100m on panamax containerships at Mawei

Mediterranean Shipping Co(MSC)는 최소 2척의 Panamax 컨테이너선을 중국 국영 Mawei Shipbuilding에 발주할 것. 재래식 4,200TEU급 선박이며 납기는 2024년임. (Tradewinds)

탱커 해체량 늘기 어려울 듯

탱커 해체 가격이 떨어지며 탱커 시장 회복이 어려워 보임. 서비스에 투입된 VLCC 중 2020년 1척, 2021년 VLCC 2척이 해체 매각됨. 해체량이 늘어나지 않고 시장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탱커 운임 수입 역시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도됨. (선박뉴스)

WTIV 업그레이드 활발

풍력 터빈 사이즈가 점점 커지며 WTIV 선주들이 기존 보유 선박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음. 벨기에 DEME Offshore은 WTIV 중 하나의 크레인 작업능력을 900t에서 1,600t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임. 하지만 업그레이드를 진행해도 최근 발주된 WTIV에 비해서는 성능이 크게 뒤떨어짐. (선박뉴스)